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설유진 신작

두산아트센터 Space111

2023. 11. 21 — 12. 09



이런 밤,
들 가운데서

계곡의 안부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당신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더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별했지요

당신을 사랑할 적에 나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담대한 사랑을 했지요 나는 아마도 우리는

그 후로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지리산 계곡 말에 텐트를 치고 지낸 일이 있습니다

첫날에는 물이 무섭게 불어나 계곡은 구경만 겨우 했습니다

폭우는 담대하게

바람이 너무 불어 텐트를 붙들고 잤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커 귀가 다 멍멍했습니다

텐트와 계곡 사이에는 울타리가 쳐져있는데

울타리 아래에는 독버섯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버섯을 잘 알지 못해도 독버섯은

우리가 독버섯이라 부르는 것들은 알 수 있습니다

내동댕이쳐진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보니 폭우에도 젖지 않는 세련됨이 필요합니다


나의 텐트는 인터넷 최저가 가성비 입문용

비가 새고 바람에 나부깁니다 펄럭펄럭 태극기처럼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당신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현현하게

당신을 사랑할 적에 나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이제는 정말로 모릅니다



작품 소개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매일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화면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처럼 멀기만 하고,
변해버린 감각에 나 스스로가 낯선 요즘입니다.

연극 <이런 밤, 들 가운데서>는 참사를 지나는 마음과 동시대 공연예술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작품으로, '더 큰 우리'가 함께 듣고 볼 수 있는 속도와 질감을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작품에는 '자유와 사랑이 도망간 세상에
그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동물원의 자랑인 앵무새 '사랑'이와 빠꾸기 '자유'가 사라진지 9년.
시인의 친구는 계간지 [자유와 사랑]의 자유기고 코너 '21세기의 시'에서
오자를 발견한다. 친구들이 누군가를 기억한다. 새를 찾으며, 술을 마시며 그
누군가가 바라본 세상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이야기가 있다.

<이런 밤, 들 가운데서>는 전 회차 한글 자막 및 음성해설이 제공됩니다.
'배리어컨셔스(barrier-conscious)' 개념에 기반하여 완벽하게 '문턱'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그럼에도 서로간의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지에 대한 907(구공칠)의 진행 중인 고민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배리어컨셔스는 전맹 시각장애인이자 예술가인 미쓰시마 다카유키가 이야기한 말로 '눈에 보이는 문턱을 없앤다고 해도 여전히
배리어는 남아 있으며, 있음에도 없다고 말하기 보다는 배리어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

(출처: 법인 탄포포노이에[민들레의 집] 편저, 오하나 역 <소셜아트 - 장애가 있는 이와 예술로서사회를 바꾸다>
미쓰시마 다카유키 인터뷰)

♥음원 출처♥

정태춘 "이런 밤" (1980)

Demis Roussos "Come Waltz With Me" (2016)

정태춘 "들 가운데서" (2002)

♥기상예보 출처♥

KBS 뉴스라인 W "오늘 낮 기온 서울,부산 22도 강릉 19도...오후 전국에 비" (2014.4.16)

KBS 뉴스9 날씨 "주말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동해안 비" (2022.10.28)

KBS 뉴스9 날씨 "내일 아침,경기·영서 북부에 비나눈...미세먼지 주의" (2022.12.08)

♥추모기도회 출처♥

한국기독교교회협회의 "10.29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2022.12.08)

작가·연출&극단소개



설유진은 907(구공칠)에서 글을 쓰고 연출을 한다. 현재의 감각에 솔직한 작업을 하려 노력한다. 언제나 고민하는 것은 자유와 사랑이다. 최근작으로 <맥베스>, <오아시스>, <하얀 꽃을 숨기다>, <홍평국전> 등이 있다. 2021년 제12회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에 선정되었다.

907

구 공 칠

907(구공칠)은 주변의 상징과 은유를 찾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소중한 만남과 대화의 자리가 그러하듯, 당신과 만나는 지금 이곳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907(구공칠)은 지금 여기에 사는 한 인간이 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하는지를 연구하고 연극으로 만들고자 한다.

배우소개



곽지숙

<멕베스 1인낭독회>
 <4분12초>
 <어느날 문을 열고>
 <오아시스>
 <햄릿의 비극> 외

°수상°
 제44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옥자연

<의붓자식>
 <어슬렁>
 <사랑의 고고학>
 <마인>
 <슈름> 외

°수상°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배우상



윤현길

<댄스네이션>
 <잔인하게, 부드럽게>
 <추락II>
 <금조이야기>
 <조각난 뼈를 가진 여자와
 어느 물리치료사> 외



최정현

<어떻게 내가 빠격거리지
 않을 수 있겠어>
 <디롤링>
 <오아시스>
 <홍평국전>
 <얼굴들> 외



하영미

<오아시스>
 <탈피>
 <결>
 <어슬렁>
 <바람에도 빛깔이 있다면> 외

°수상°
 Best Actress. Toronto Indie
 Filmmakers Festival

연습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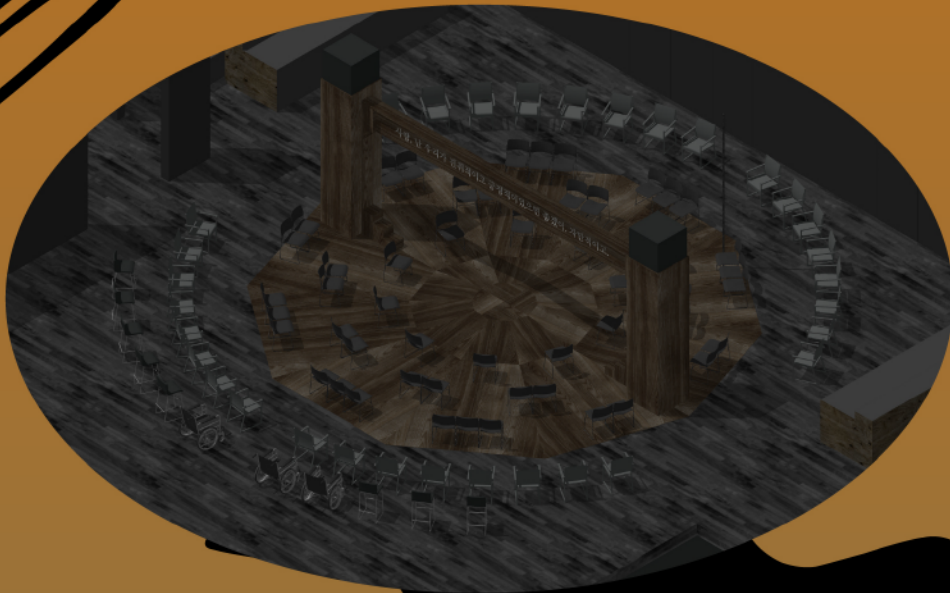
무대 스케치

그는 참 많이 걸어 다녔을 거 같다.

이번엔 내 앞에서 눈물을 가끔 보이기도 했고, 한참을 서서 한곳을 응시하기도 했다.
외로운 싸움이지만 함께 연대했던 기억 그 공간의 기억을 계속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려고 했다.

작업을 하며 그와 보낸 모든 시간과 말 그리고 눈빛이 내게 참 많은 영감을 주었다.
비록 좁지만 함께 또 같이 곁에 붙어 앉아서 작은 온기라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무대디자이너의 글-





♥공동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907(구공철)

♥작/연출 설유진

♥프로듀서 송미선

♥조연출 조다은

♥출연 광지숙, 옥자연, 윤현길, 최정현, 하영미

♥안무 하영미

♥음향디자인 목소

♥음향오퍼레이터 류혜영

♥음향크루 정명균 탁승빈

♥무대디자인 신승렬

♥무대제작 에픽 (APIC 대표: 전종혁)

♥무대팀 최세현 이현정 채근주 이주은 편운장 전진우

♥조명디자인 신동선

♥조명어시스턴트 정우원

♥조명오퍼레이터 이진우

♥조명크루 정주연 김휘수 정하영 김슬기 김민지 이현직 김민기 이지은

♥의상디자인 우영주

♥분장디자인 장경숙

♥분장크루 김다현

♥영상기술감독 강경호

♥영상크루 김현영

♥무대감독 박진아

♥접근성매니저 박세련

♥접근성모니터링 해랑 이성수

♥자막제작 조다은

♥자막오퍼레이터 오의택

♥티켓매니저 양기쁨

♥그래픽디자인 유나킴씨

♥프로필 사진 정희승

♥영상촬영 및 공연, 연습 사진 박태준

♥접근성 영상 및 음성파일 제작 목소

♥목소리 하영미, 옥자연



두산아트센터

♥센터장 강석란

♥공연기획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박소연 김하은

♥교육기획 박찬종 정다운 이보라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이지혜

♥티켓 이희정 김지은

♥기술총괄 신승욱

♥음향 류호성 조준식

♥조명 황동철 왕은지

♥무대 강현후 박소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사무 박세연